

온천의 땅, 이부스키

이부스키는 유명 온천이 1,000 개가 넘는 일본에서 고농도 온천수를 보유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온천과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모래찜질 온천(스나무시 온천)이 있습니다. ‘이부스키’가 ‘풍부한 온천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 문자로 쓰인 적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부스키의 수많은 천연 온천은 화산이 많은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부스키는 약 10 만 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화산 분출로 형성된 아타 칼데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칼데라에는 대부분출로 생긴 작은 분화구 여러 개로 패인 자국이 있는데, 이 중에는 비교적 최근인 6,300 년 전에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부스키의 상징적인 원뿔 모양의 산 가이몬다케는 활동 중인 현무암 성층화산입니다. 수많은 화산을 만들어낸 동일한 열과 압력은 무기질이 풍부한 지하수를 끓어오르게 만들어 지표면으로 솟아오르게 합니다.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풍부한 온천수를 목욕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부스키가 최소 1500 년대 초부터 온천 여행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무역상 조르즈 알바르스(사망 1521 년)는 일본에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 중 한 명으로, 1546 년 저서 <일본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Japanese Matters*)>에서 이부스키의 온천을 언급했습니다. 1600 년대에 지역 시마즈 가문의 영주들은 이부스키의 풍부한 온천을 활용하기 위해 개인 별장을 지었습니다.

이들 중 한 영주는 목욕 시설을 지었으며, 이는 지역에서 ‘도노사마유(‘영주의 목욕탕’)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31 년에 세워진 이 목욕 시설은 오늘날 두 가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목욕 시설을 둘러싸고 있던 별장은 사라졌지만, 원래의 탕과 일부 타일 장식은 이부스키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접한 대중 목욕탕은 한때 사무라이 영주들이 즐겼던 욕탕에 몸을 담그러 오는 목욕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부스키는 더할 나위 없는 온천 천국입니다. 도노사마유처럼 전통적인 목욕탕을 선호하는 사람, 헬시랜드 타마데마코처럼 사우나와 풀장이 있는 현대식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 탁 트인 바다 전망, 녹음이 우거진 산 속 휴식처, 맑고 깨끗한 염화물 온천이나 향이 강한 유황 온천을 선호하는 사람까지, 이부스키에는 누구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온천이 있습니다.